

온라인플랫폼 입점 中企, 매달 광고비만 100만원 ‘훌쩍’

중기중앙회, 1103개社 대상 조사
숙박·배달앱 각각 108만·107만원
평균 판매수수료율, 쇼핑몰 14.3%
추 본부장 “플랫폼 시장 규율 필요”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플랫폼사에 매달 평균 100만원이 넘는 광고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와 관련해 입점업체들이 가장 많이 개선을 원하는 분야 역시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였다.

이들 업체 3곳 중 2곳은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와 부당행위 등을 규율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이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고 있는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거래 실태를 조사해 3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대상 입점 플랫폼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

배달앱 입점사 광고종류수·구매건수·광고비

(base:전체, n=300, 단위:%)

구분	사례수	월평균 광고 종류 수(개)	월평균 광고 구매 건수(건)	월평균 총 광고비(원)
전체	(300)	0.6	0.9	107,780
연 매출액	2억 미만 (100)	0.7	1.1	113,260
	2~5억 미만 (110)	0.5	0.8	103,636
	5억 이상 (90)	0.6	0.8	106,756
배달앱 거래 기간	3년 미만 (89)	0.3	0.6	52,270
	3~5년 미만 (122)	0.6	0.7	98,508
	5년이상 (89)	1.0	1.4	176,000
주거래 배달앱	배달의 민족 (110)	1.5	2.2	220,764
	쿠팡이츠 (90)	0.02	0.02	3,333
	요기요 (100)	0.2	0.2	77,500

가, SSG닷컴, 무신사,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숙박앱은 야놀자, 여기어때가 두루 포함됐다.

조사에 따르면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 평균 광고비는 온라인 쇼핑몰이 120만7263원, 숙박앱이 107만9300원, 배달앱이 107만78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숙박앱의 경우 입점업체는 매달 평균 노출 광고비로 82만2200원, 쿠팡 광고비로 25만7100원을 각각 지출했다.

이런 가운데 플랫폼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중개거래 품목 기준)은 온라인 쇼핑몰이 14.3%, 숙박앱이 11.5%였다.

조사 대상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는 패션을 전문으로 하는 무신사가 27.8%로 SSG닷컴(18.8%), 11번가(12.5%), 쿠팡(12.3%) 등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네이버는 6.3%였다.

중개거래(위수탁거래) 비중은 네이버가 100%로 가장 높았고, 무신사도 99%에 달했다. 쿠팡은 50.7%였다. 반면 플랫폼사가 직접 구매하는 직매입 비중은 쿠팡이 55.3%로 가장 높았다. 네이버는 전무했고 무신사는 1%에 그쳤다.

온라인 쇼핑몰 직매입 거래의 경우 입점업체가 가져가는 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평균 27.2%로 조사됐다. 물류비는

판매가 대비 5.7% 수준이었다.

숙박앱은 최고 17%, 최저 8%의 예약(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수료는 야놀자(11.7%)와 여기어때(11.4%)가 비슷했다.

다만 배달앱은 업체별 수수료 체계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어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입점 기업들이 체감하는 전년 대비 거래 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선 절반 가까이 ‘변화없다’고 답했다. ‘변화없다’는 답변은 온라인쇼핑몰 55.4%, 숙박앱 54.5%, 배달앱 45.7%였다.

거래 비용이 ‘줄었다’는 플랫폼은 ▲배달앱(33.3%) ▲온라인 쇼핑몰(22.4%) ▲숙박앱(21%) 순이었고, ‘늘었다’는 ▲숙박앱(24.5%) ▲온라인 쇼핑몰(22.2%), 배달앱(21%) 순이었다.

지난해 플랫폼과 거래시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숙박앱(7.5%), 배달앱(5.3%), 온라인 쇼핑몰(5.1%) 순으로 많았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은 온라인쇼핑몰에선 ‘상품 부당한 반품’(48.4%), 배달앱에선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앱에선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 등으로 조사됐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숙박앱(74%), 온라인쇼핑몰(65%), 배달앱(61.3%) 순으로 많았다.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정정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이행해온 오픈마켓, 배달앱에 비해, 숙박앱에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이나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자율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협업 스타트업 3곳 추가 육성

협업쇼핑이 스타트업 추가 육성에 나섰다. 협업쇼핑은 ‘2024 협업쇼핑×서울창업허브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협업할 스타트업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패션(라이프스타일), 방송·콘텐츠, ICT&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서 진행한 이번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서 혁신적 기술과 사업역량을 가진 스타트업 3개사가 서류심사와 방문심사, 대면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미타운(3D 이미지 모델링) ▲제트에이아이(AI 기반 CRM솔루션) ▲비크코퍼레이션(스타일링 공유형 리워드 커머스)은 개별 회사 제품과 서비스,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협업쇼핑과 협력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中企 인력양성 지원 등 원전 생태계 복원 앞장”

강석진 이사장, 원전기업 삼흥기계 현장 방문 “소형원자로 개발 위한 설비투자 확대 계획”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중소기업 원전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현장으로 갔다.

중진공은 강석진 이사장이 3일 경남 창원에 있는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핵융합 설비 전문 제조업체인 삼흥기계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자로’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발전용량이 300MW급 정도의 소형 원자력발전소를 말한다.

지난 30년 간 원전산업을 영위해온 삼흥기계는 2014년 창원 진북면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3일 경남 창원 소재 삼흥기계를 방문해 기업 소개를 듣고 있다. /중진공

각종 원전 부품 및 가공설비 제조인력으로 90여명을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원자로 및 핵융합설비 제작이 가능한 자체 생산체계를 구축했으며 KEPIC(전력산업기

숭기준), ASME(원자력제조인증) 등 국내외 원자력 품질보증 인증을 취득해 원자력 생산품과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에 공을 들였다.

김홍범 삼흥기계 대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소형원자로 개발에 필요한 설비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진공과 같은 기관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정부의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정책 방향에 맞춰 지원사업을 다각화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경남지역 소재 원전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자금과 수출마케팅, 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제작결함시정공고(재통지)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 개요**
 ㈜오토스원의 주노, 아폴로, 루키 및 페르난도 일부 차량에서 경음기의 경적을 최소크기 자동차 안전기준 제 53 조(경음기)에서 제시한 90 데시벨 이상을 만족하지 못하는 결함이 확인되어 제작결함시정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 결함 대수 및 대상 기간**

차량	형식	제작기간	대상대수		
			판매	미판매	계
주노	S11	2020.06.22 ~ 2021.02.04	352대	256대	608대
아폴로	X1	2020.06.22 ~ 2022.04.13	41대	150대	191대
루키	S4	2021.02.04	-	10대	10대
페르난도	S5	2021.02.04	-	2대	2대
계			393대	418대	811대

- 제작결함 내용**
 - 결함이 있는 구조 장치: 전기장치(경음기)
 - 원인: 경적시 경음기의 최소크기 자동차 안전기준 제 53 조(경음기) 기준 부적합
- 제작결함 미시행 시 영향**
 - 경음기 조작 시 최소크기 미달로 타 차량 및 보행자가 위험 경고를 인지하기 어려움이 있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
- 결함 시정기간, 장소 및 문의처**
 - 시정기간: 2023.08.30일부터 완료 시까지
 - 시정장소: ㈜오토스원 본사 및 서비스센터
 - 시정관련 문의처: 고객센터(062-975-7280)
 - 시정방법: 개선된 부품 교체
- 자동차관리법 제 31 조의 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의거하여 자체 시정한 차량에 대하여 시정 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 보상 대상기간: 2021.03.11부터
 - 보상 신청장소: ㈜오토스원 고객센터
 - 보상신청 연락처: 고객센터(062-975-7280)
 - ㈜오토스원 귀책 사유로 시정조치를 하지 못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작결함 시정 비용부담 방법:** 대상차량 전량 무상수리

OTOSI
 경기도 안성시 동문구 흥안대로 415, 두산벤처대입 523 호 TEL) 031-478-3225/FAX) 0505-265-4582

중소유통센터, 인천공항에 ‘판판면세점’ 3곳 더 연다

입점 희망 中企, 홈페이지 통해 신청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새로 선정됐다.

3일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따르면 전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를 통해 이같이 결정됐다.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점 ‘판판면세점’은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2021년 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01% 이상 매출이 늘어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법규 수행 능력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 등급을 획득하는 등 안정된 면세 운영 사업자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자 선정을 통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판판면세점.

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면세점 3곳을 추가로 운영하게 된다. 기존 3곳을 더하면 총 6곳(제1여객터미널 2곳, 제2여객터미널 4곳)에 달한다.

‘판판면세점’은 향후 매장 인테리어 공사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올해 11월 매장을 열 계획이다. 입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판판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은 이달 중 시작한다. /김승호 기자

카카오게임즈, ‘가디언 테일즈’ 4주년 업데이트 사전예약 시작

카카오게임즈가 ‘가디언 테일즈’ 업데이트 사전예약을 실시한다. 카카오게임즈는 모바일 역할 수행 게임(RPG)인 ‘가디언 테일즈’의 4주년을 기념해 업데이트 사전예약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게임즈에 따르면 사전등록에 참여해 업데이트를 완료한 이용자 전원에게 3000점이 지급된다. 점은 가디언 테일즈 내에서 사용되는 주요 화폐 단위다.

아울러 4주년 업데이트에 맞춰 ‘마에스트라 미래공주’ 캐릭터 의상을 지급하고, 픽업 소환 및 선택 소환 최대 150회 제공 이벤트 등을 통해 다양한 보상을 제공한다. 공식 카페를 통해 사전등록 참여 인증을 남긴 이용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티셔츠 등 ‘4주년 굿즈’ 상품도 제공한다.

/안재선 수습기자 wotjs4187@